

강진군, 농특산물 전시장 다산베아채CC에 설치·운영

가공식품·차류·수산물 등 약 25개 전시·판매

안내표 부착되어있어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가능

강진군은 7월 9일부터 강진의 대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도암면 다산베아채CC에 농특산물 전시장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골프장 1층 로비 내부에 있으며, 유기농쌀, 쌀귀리, 잡곡 등 농산물과 목이버섯, 쌀귀리 분말, 스무디밀, 작두콩차 등 가공식품 및 차류,

그리고 토하젓, 매생이, 전복 등 수산물과 강진작한우까지 약 25개의 강진군을 대표하는 농수축특산물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또한 병영양조장 김견식 대표(식품명인 제61호)가 직접 제조한 전통주와 강진전통된장 백정자대표(식품명인 제65호)가 직접 담근 전통 장류도

함께 볼 수 있다.

전시장에는 농특산물 구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전시 품목의 생산자, 가격, 연락처 등 안내표가 부착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구매가 가능하다. 다산베아채CC는 총 45만평 대지에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3개 코스(다산, 베아채, 장보고)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최고의 오션코스과 가우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일 300~400명이 방문하고 있다.

다산베아채CC 관계자는 "향토기업으로서 강진의 문화와 농수축수산물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골프장 내 전시장 운영이 강진군 홍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시기에 농특산물 판로를 위해 협력해준 다산베아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고정고객D/B 구축 등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민기자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개장

다음달 8일까지 운영...안전해수욕장 위해 코로나19 방역 총력

장흥군은 안양면 수문리에 위치한 수문해수욕장을 7월 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31일간 개장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장식을 취소하고, 9일 오전 10시경 수문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장흥군, 장흥소방서, 완도해양경찰서 수문출장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의용소방대, 안양면 수문마을어촌계 등 유관기

관 관계자들이 모여 간소하게 안전 기원제를 올리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시범 훈련을 통해 해수욕장 무사고를 기원했다.

장흥군은 개장에 앞서 다중이용 시설(화장실, 샤워장, 세면대 등)과 이번 폭우로 유실된 모래사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며, 안양면과 수문마을어촌계에서도 관광객들의 쾌적한 해수욕장을 이용을 위해 개장 전 해변가 청소를 실시했다.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해양수산부 선정,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수문해수욕장에 지난해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은 방역안전관리 요원 8명과 수상안전구조대 5명을 채용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더해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한 자리 배정으로 이용객들의 간격을 유지하고, 진입로 입구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명부 작성 시간을 단축하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낮출 예정이다.

또한 종합상황실, 화장실, 샤워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안전장비에 대한 소독도 하루 2회 이상 실시한다.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할 예정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방문객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해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관리 강화

23일까지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전남지역 확진자 급증 추세에 따라 해남군이 지역감염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일간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을 밤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누구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타지역 방문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하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지역 방문 자제와 부득이 방문하였을 경우 방문지에서 검사 후 복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타지역

방문 후에는 7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지역 주민인 경우 해남 방문 및 모임 자제와 함께 방문시에는 거주지에서 검사 후 해남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7월 21일부터 운영되는 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 179명에 대해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 음성인 선발자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등록할 수 있다.

앞서 해남군은 7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8주간 특별방역대책 TF를 편성,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휴가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

라 10일부터 31일까지 특별방역 주간 대책도 시행한다.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실내의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9일부터 사적모임 금지, 집회 및 행사 금지, 100명 미만으로 허용인원을 제한한다.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와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도 권고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내 피해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해 강화된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중앙정부 및 전남도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코로나 4차 대유행 차단과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자원봉사자 침수피해 주민 돕기 '한마음'

주말동안 전 공직자 쓰레기 수거 등 복구 구슬땀 흘려

진도군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섰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도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인 460mm(평균 504mm)의 많은 비가 쏟아져 조금리 5일 시장과 농경지 침수, 차량과 주택

이 물에 잠기는 등 1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의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20여개 단체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위생과 청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침수된 집의 가구와 전자제품 등의 정리와 소독 등 침수 주택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 마을 방역과 물에 젖은 이불, 옷 등 세탁 봉사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루빨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